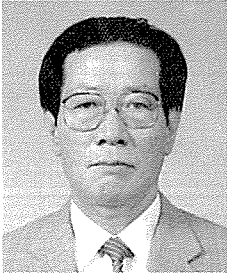


進化論의 궁금증



尹 任 重

〈가톨릭의대 부속 산업의학센터 소장〉

침팬지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는 진화론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두고
 상급동물인 인간으로 진화되기 위해서는
 인간과 침팬지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인팬지라는 동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므로 진화론이
 영원한 궁금증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속 시원하게
 설명해 줄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정확히는 1933년 5월부터 1994년 11월말 현재까지 살아오는 동안 궁금한 일이 어찌 한둘 뿐이라. 아내와 말다툼을 할때마다 한번도 이겨보지 못하고 번번이 참패당하는 것도 알 수 없는 일이고 선거때마다 살신봉사 하겠노라던 그들이 국회에 나가서는 자기 앞을 가리느라 삼박질하는 생리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중의 하나이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제가꿈 한결같이 법을 지키노라 말 하지만 끼어드는 차는 왜 그리 많고 중앙선을 넘다가 생명을 버리는 일은 왜 그리 흔한 것인지.

안전제일, 부실공사 방지가 어디 어제 오늘의 일이든가. 입버릇처럼 말해 왔지만 왜 일은 끊임없이 터지는 것일까. 말귀가 트일때부터 부정부패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지만 요즈음의 낱강도들은 웬 말이나. 그렇게 영리하고 자랑스런 용기를 가진 작자들이 하필이면 도둑질을 했을까? 이름하여 세도(稅盜)님(?)들! 시원하게 말이나 해 보구려.

이 세상에 여자가 없다면...

이 세상에 여자가 없으면 얼마나 삭막할 것인지도 상상이 가지 않거니와 눈에 띄는 것들이 모조리 한가지 색깔이라면 그놈의 세상이 얼마나 지겨울지도 추측되지 않는다. 색깔이 있어 세상이 아름답지 않으나 말이다. 자동차의 타이어는 죽으나사나 까만색이어야 하는지.

자동차 색깔에 알맞도록 타이어 색깔도 여러가지로 만든다면 운전이 피로한 눈을 한결 부드럽게 할텐데. 빛을 모두 반사하면 왜 흰색이고 모두 흡수하면 왜 까만색으로 보이는 것인지는 나도 모르는 일이다.

각설하고 고등학교 생물시간에 진화론 얘기를 처음 들

은 것으로 기억된다. 동물은 세월이 흐를수록 조금씩 진화하는데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는 정도의 지식이었다. 어떤 책에 의하면 생물은 저급의 것으로부터 고급의 것으로 진화하며 생존경쟁에 적합한 것은 존속하되 그렇지 못한 것은 존속할 수 없다는 '진화론'은 1859년 다윈에 의해서였다고 한다.

아프리카 원주민과 침팬지

그후 원숭이의 일종인 침팬지라는 놈이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는 이론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아프리카에 사는 원주민과 침팬지를 견주어 보면 닮은 데가 하도 많아서 실제로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생물은 종을 번식시키고 나름대로 대를 이어가지만 그렇지 못하면 사멸하고 마는 현상이야 어려운 '종의 기원'이나 '진화론'이 아니고서도 우리 주위에서 흔히 경험하는 일이다. 근래 환경오염이나 자연의 모양을 바꾸는데 따른 생태계의 큰 변화를 예감하는 것도 적자생존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여하튼 배달민족이 고프로부터 시작되었건, 열대지방의 원숭이가 진화하여 인류가 되었든 간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서 그러한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야 할 일이다. 무슨 말이나 하면 원숭이중에서 지능이 가장 발달하여 인간과 매우 닮았다는 침팬지와 인간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동물이 있어야 한다.

생각할수록 혼돈스러워

인간과 침팬지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동물을 인팬지라 하자. 인간과 인팬지의 중간에 해당하는 동물도 또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어느 침팬지의 새끼가 하루 아침에 인간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무척 오랜 세월을 두고 어느듯 모르는듯 조금씩 조금씩 진화되어 상급동물인 인간으로 진화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인팬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지구 어느 구석에서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전혀 알 수 없고 주민등록증도 없는 인간이 계속적으로 태어나야 될 일이다. 거듭 말하면 침팬지가 사람으로 진화되기까지 천만년이 필요하다고 하자. 지금부터 꼭 천만년전 침팬지의 자손은 인간이 되었을 것이지만 이보다 천년 늦은 자손, 십만년 늦은 자손 그리고 백만년 늦은 자손도 있을 것이다.

천만년보다 어느 기간만큼 늦게 태어난 침팬지의 자손은 늦게 태어난 만큼 인간보다 모자라는 상태일 것이고 빨리 태어난 놈의 후손은 눈곱만큼이라도 더 진화되어 태어났을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인간인지 침팬지인지 전혀 분간할 수 없는 동물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보가 이렇듯 빠른 오늘날, 인간인지 침팬지인지 알수 없는 동물을 만났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진화론'을 믿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혼돈스럽고, '진화론'은 끝까지 궁금증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속 시원하게 설명해 줄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㉟

